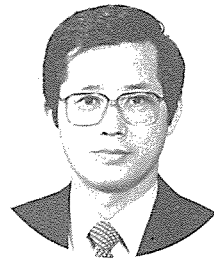


沿岸 食糧資源 개발



許 亨 澤
〈海洋研究所 所長〉

|| || || ||

海洋開發 심포지움

|| || || ||

이 논문(요약)들은 民正党的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「海洋開發심포지움」에서 발표된 것이다.

2 천년대 초엔 우리나라의 인구가 6천만에 육박하게 될 것이나 반대로 농경지는 지금의 60%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. 따라서 현재 50%미만인 食糧自給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어 앞으로 수산물은 식량으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될 것이다.

1979~83年 사이에 우리나라의 食糧輸入量은 매년 19~31억불로서 전체 輸出額의 약 10%에 이르고 있다.

현재 国民 動物性 단백질의 60%를 水産物로 충당하고 있는데,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2 천년대 초엔 水産物(1983년 현재 279만톤)를 연간 400~450만톤으로 증가해야 할 입장에 있어 水産物 증산을 위한 国家的 对策樹立이 시급한 실정이다.

◇ 沿近海 어업의 현황

우리나라의 沿近海 漁業生産量은 1983년말 현재 약 150만톤으로 總漁獲高의 53%를 차지하여 水産業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. 沿近海 漁獲高는 70년대 후반까지 매년 6% 정도의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나 80년대에 와서는 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. 이 가운데서도 近海漁業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沿岸漁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 즉 東西南海岸의 漁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정어리, 고등어 등 일부 浮魚資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資源量의 감소로 인하여 漁獲增加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.

重要 魚種別로 살펴보면 東海의 오징어, 꽁치와 같은 多獲性 魚種을 비롯하여 西海의 참조기 등의 漁獲量이 70년대 후반을 고비로 크게 감소하였다. 반면에 근 40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정어리가 7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연간 10만톤을 상회하고 있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. 고등어, 말퀴치, 멸치, 갈치, 명태등은 모두 10~20만톤 代에 漁獲高를 유지하는 비교적 안정된 資源狀態를 유지하고 있다.

漁業別 動向을 보면, 鮫鯨網, 共同漁業, 大型 旋網 및 기선저인망 어업등은 계속 증가 추세이나 그외의 漁業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.

◇ 문제점과 대책

전체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沿近海 漁業은 오염과 남획, 그리고 간척사업과 臨海産業施設의 확장에 따른 沿岸漁場의 축소 등으로 점차 그 資源量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. 또한 新海洋法의 등장으로 遠洋漁場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沿近海漁業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.

沿近海漁業 振興을 위한 대책은 ①漁業環境의

보전 및 개선 ② 과학적인 자원관리 및 자원조성 ③ 養殖漁業의 확대 등 크게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. 沿岸漁場의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漁業生物의 棲息環境을 제공해야 하며, 남획 및 不法漁撈防止, 망목 및 체장제한, 資源造成을 위한 重要생산放流, 禁漁期 설정, 最大持續生産量 설정 등으로 魚族資源의 관리와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 또 養殖産業의 확대를 위해 重要 養殖魚種의 重要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, 우량품종의 도입 및 개발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.

◇ 2000年代의 전망

水産庁은 2천년대 沿近海漁業의 진흥을 위하여 2000년까지 漁獲高를 현재의 148%인 413만톤을 생산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. 특히 養殖生産을 현재의 218%까지 늘려 全体漁業의 36% (현재 23%)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. 이를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확대, 種苗培養場 증설, 沿岸 養殖場의 확대 등 沿岸水域의 牧場化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한다.

또 현재 科學技術處가 준비중인 「2000년대 海洋開發長期綜合計劃」에 의하면 현재 1.3조원의 漁業生産량을 2001년까지 이의 2.5배인 3.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 同 計劃에 의하면 增養殖技術을 중점 개발하여 高級 魚種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며 未利用 및 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漁業技術과 加工技術의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되어 있다.

우리나라의 沿近海 海域은 暖流와 寒流가 교차하여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어 水産業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立地條件을 구비하고 있다. 그러나 이미 채취형 어업으로서는 한계점에 와 있는 실정으므로 소위 “栽培形漁業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. 이를 위해서는 資本과 技術이 필수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技術開發과 投資가 선행되어야 한다. 구체적인 정책적 배려와 기술개발에의 투자가 수반된다면 韓國이 2천년대엔 명실공히 先進水産(海洋)國으로 크게 부상될 것이다.